



도감출판은 정확성이 생명, '머슴 정신'으로 새 분야 개척



도감 및 자연 그림책을 기획하는 도토리기획에서는 '우루루 시스템', '돌 굴리기'라는 말을 자주 쓴다. 말 그대로 단체로 몰려다니며 취재를 하고, 취재 후에는 머리를 굴려가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이들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토리기획의 식구는 총 10명. 이들은 각각 도감팀과 자연 그림책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 중 도감을 맡고 있는 사람은 심조원 사장(39)과 이대경 차장, 노정임 씨, 김중현 씨 이렇게 네 명이다.

“일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현장답사부터 편집과정 그리고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 정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만들 때 필요한 이 각각의 과정들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도감출판은 시장성과 시기 때문에 마감을 두는 단행본 출판과는 다르다. 계절에 맞춰 나오면 좋은 일이지만 보다 정확한 도감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염두에 둔다. 그 중에는 기획기간을 제외하고 7년에 걸쳐 완성된 도감도 있고, 짧게는 2년이 소요된 책도 있다.

심조원 사장은 기획팀과 감수자, 일러스트레이터, 복디자이너까지 모두 답사에 참여시킨다고 말한다. 각자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생명체를 함께 보고 느낀 것을 대화를 통해 풀어낼 때 더 값진 아이디어가 나오고 놓친 것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기획팀과 도감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삼을 들고 산에 오르는 게 다반사고, 더운 날 화상을 입어 고생한 적도 있다. 이렇게 책 속에 다양한 에피소드와 추억이 담겨 있기에 도감 한권 한권이 소중한 자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무슨 꽃이야?》를 감수해 주신 전의식 선생님이 칠순이 넘으셨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지난 여름에 경기도의 한 산에 올랐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저희들도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다음날 선생님께서 몸살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군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이대경 차장은 전문가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고 한쪽에서는 채집을 해야 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닌가봐?”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고생을 했어도 화가, 감수자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밝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도토리기획의 도감은 독특하다. 생물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육성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도감을 단순한 자연관련 학습책으로 여기지 않는 기획팀 나름의 시각이 담겨 있다.

“학자들은 표준 분류차례를 사용합니다. 자연관련 지식을 담으니까 근대 과학 차원에서 분류학적인 접근이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도토리에서 이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중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분류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하고 수없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입니다. 기존의 질서나 분류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가정을 해보고 원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도토리기획이 도감과 그림책 작업을 구분짓기보다는 그것을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결국 이들은 자연정보는 기계정보와 달리 오감의 느낌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도감을 바라본다.



왼쪽부터 노정임 씨, 이대경 차장, 심조원 사장, 김종현 씨

심조원 사장은 같은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실제 농어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감을 통해 학문적으로 만든 분류체계와 이름들 그리고 실제 농부와 어부, 숲의 현장에서 쓰이는 말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숲의 진실을 찾고 지식과 삶, 경험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도감기획자의 임무다.

“도감편집자는 ‘머슴’ 같아야 해요. 부지런하게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서야죠. 일하는 과정이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일이니까 책 나오기 전까지는 그 그림이 각자들 마음에 각각 다르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 조각들을 열고 서로 마음을 전달하면서 손발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원을 뽑을 때 농담조로 촌뜨기 출신들을 우대한다는 문구를 단다. 그만큼 도감기획은 자료 의존보다는 실제 체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도토리가 기획한 도감의 또 다른 특징은 사진 대신 일러스트를 쓴다는 데 있다. 사진으로 찍으면 될 일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일러스트가 생명체의 모습을 사진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그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심조원 사장은 그런 점들을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잘 발견해 낸다고 말한다. 실제로 초등학생인 그의 아들은 곤충도감으로 글을 썼고 샌님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벌레를 잡기 시작했다. 도토리에 들어온 지 2년이 됐다는 노정임 씨는 “도감 형식의 펼친 그림책을 보던 조카가 책을 펼쳐놓고 갯벌 위를 걷는 포즈를 취하더라”며 아이들이 든든한 모니터 요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 역시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때다.

심조원 사장은 최근 농어촌 문화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도감에 관심을 두는 편집자들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한다. 나무 타던 경험, 풀 캐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할 세밀화 화가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니 미래 도감출판이 걱정되기도 한다.

이 어려움 속에서 완성한 책 중 그동안 도토리기획에 효자 노릇을 해온 책은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과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동물도감》이다. 출간 당시 IMF 관리체제가 되면서 단기간의 성과는 없었지만 2,3년이 지나면서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도서관, 학교 측에서 책을 다량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조원 사장은 당시 도감출판이 일반 단행본 출판과는 다른 장기간의 노력과 기다림을 필요로 함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도감이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획팀과 관련자들을 괴롭히면서까지 공을 들인다.

도토리기획은 약 10년간 도감출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동안의 업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숙제들을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화된 도감을 만들어보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에 가장 많은 나무는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라고 한다. 참나무는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이 없을 때는 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도토리기획은 실제 도토리나무처럼 우리 도감출판의 중추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도 ‘우루루 현장답사’를 준비하고 있다. ☞

취재 김창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